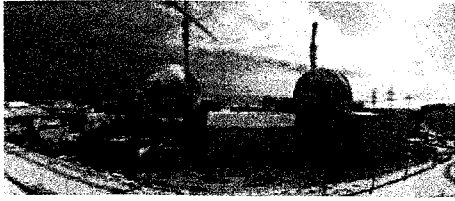


신월성 2호기, 초기전원가압으로 본격적인 시운전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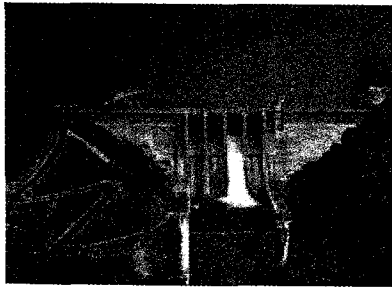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태)는 지난달 17일 경주시 양북면 신월성원자력 2호기 주제어실에서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월성원자력 2호기의 초기 전원가압 기념행사를 갖고 신월성 2호기 시운전 시험에 본격 착수했다.

초기전원가압은 건설 중인 원전이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시운전 시험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 공정이다. 초기전원가압이 성공해야만 이후 계기용 공기설비 등에 전원을 공급하면서 순수 생산과 계측제어설비 등이 가동되어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다.

신월성원자력 1, 2호기 건설 사업은 한수원이 종합사업관리와 시운전을 담당하고,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 설비 및 터빈 발전기 제작은 두산중공업이 담당하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 3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수원, 10년 만에 양수발전 통합시대 열다



2001년 한전에서 발전회사가 분사된 이래 10년 만에 양수발전의 통합 운영시대가 다시 열린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지난해 30일 이사회를 열어 5개 발전자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양수발전사업 분할·합병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달 3일 등기를 제출하고 통합·운영체제에 들어간다.

이번 양수발전 통합은 지난해 8월 KDI 용역을 토대로 한 지식경제부의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방안에 따른 것으로 수익 측면보다 국가 공적기능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력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화와 기술축적을 통해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결정이다.

남부발전, 발전사 최초 매출 5조 원



남부발전이 2001년 4월 창사 이래 꼭 10년 만에 매출 5조 원을 달성했다.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 전력판매량 기준 발전회사 최초의 매출 5조원 달성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보다 1년을 앞당긴 기록이다.

이러한 매출액 규모는 국내 재계순위 60위권에 해당되며(2009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집계 기업 매출액 기준), 전력회사 중에서는 한

전(매출액 33.6조/재계순위 6위)과 한수원(매출액 5.1조/재계순위 59위)에 다음가는 매출액 규모이다.

이 기록 외에 남부발전은 10년간 누적 매출액 역시 국내 화력발전사 최초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동서발전·현대중공업 아이티서 디젤발전소 준공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과 현대중공업(회장 민계식)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3일 오후 1시(한국시각 14일 새벽 3시)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E-Power 디젤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한 디젤발전소의 용량은 3만kW에 불과하지만, 아이티 전력생산량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총공사비는 5600만 달러가 들었다. 동서발전은 이 발전소 지분의 30%를 보유한 상태로 최초 건설단계부터 이 사업을 주도해왔다. 동서발전은 앞으로 15년간 발전소 운영·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동서발전은 전기요금을 아이티 정부가 보증함에 따라 사업기간에 안정적 운영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DECCO 등 국내업체들이 기자재 공급과 시공을 담당, 명실상부하게 우리 기술력으로 지은 발전소란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현대중공업 제품이 이 디젤발전소에 들어간 배경은 뛰어난 안정성과 성능이 현지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최대전력수요 7300만kW도 돌파



최대전력수요가 사상 최초로 7300만kW대를 돌파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최대전력수요가 7313만7000kW까지 치솟으며 종전기록(7184만kW)을 129만7000kW 웃돌았다. 종전보다 50만kW급 대형 발전기 3기를 발전시켰다. 이번 겨울 들어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벌써 4번째다. 이는 특히 전력거래소가 당초 전망했던 최대전력수요 예상치인 7250만kW보다 63만7000kW 상회한 수준이다.

한전원자력연료, 논산시에 첨단 피복관 생산공장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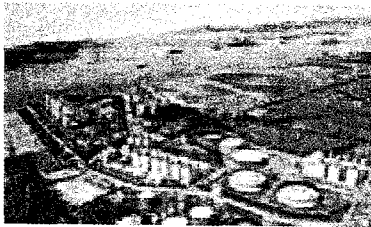


한전원자력연료(사장 김기학)가 논산시와 손잡고 핵연료 핵심부품인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 공장을 건설한다.

한전원자력연료 김기학 사장과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달 17일 논산시청에서 피복관 공장 건설을 위한 계약체결 서명식을 가졌다.

공기업인 한전원자력연료의 최첨단 핵연료 부품공장이 논산시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스코파워, 신재생에너지 두각 전망



포스코파워(사장 조성식)는 올해 인천복합 5,6호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인천복합 5,6호기의 용량은 총 1149.2MW로 가스터빈 183.23MW×4기와 스팀터빈 208.123MW×2기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광양부생가스 발전소(142MW×2)가 종합준공,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최대 민자발전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포스코파워는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포스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모기업인 포스코는 풍력, 스마트 원자로, 스마트 그리드, LED, 연료전지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2020년까지 약 7조 원을 투자, 연매출 10조 원 달성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케이디파워, 2011년 파트너 유통망 통합 출정식



산업IT의 표준선도기업 케이디파워(대표 김임배·반기호)는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지난달 6~7일 양일간 전국 60여개의 센터·지사 대표와 임직원 등 2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파트너유통망 통합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은 2011년 회사 비전과 경영 방향을 공유하며, 전국 파트너망과 한방향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화합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2011년 케이디파워의 매출 목표는 4,036억 원이다. 이를 위해, 기존사업인 ▲중전기기군 ▲태양광사업군 ▲전력시공사업군 이외에도

△태양광신재생에코사업 △LED사업 △M2M증강현실 서비스 유료화 등 새로운 사업 분야의 힘찬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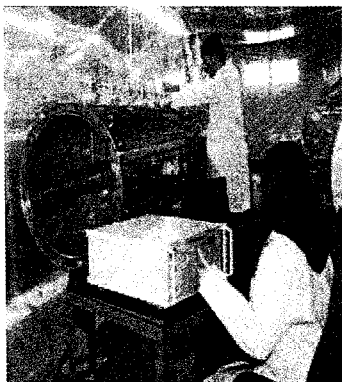
GS EPS, H급 복합 3호기 증설



GS EPS(사장 이완경)는 올해 획기적 수익 창출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운영 경쟁력 제고와 신규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 녹색성장사업 기반 구축, 사업수행역량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추진강화를 경영목표로 잡았다.

특히, GS EPS는 충남 당진 부곡 산업단지 내에 추가로 LNG복합화력 3호기를 증설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신설되는 3호기의 용량은 400MW 규모로, 3월에 착공해 2013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3호기 증설은 지멘스가 가스터빈, 증기터빈, 발전기 등 주요 설비를 공급하고, GS건설이 설계 및 시공을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츠로테크, 초당 12경개 양성자 가속...신산업 열린다



비츠로테크(사장 유병연)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기술개발사업단(단장 최병호)과 함께 2002년부터 8년 여간 연구해온 대용량 선형 양성자가속기 개발에 성공했다. 초당 12경개의 수소 양성자를 가속시키는 대용량 가속기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개발이다.

가속기는 올해 11월부터 현재 건설 중인 경주시 건천읍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에 설치돼 2012년 하반기 중 시험운동을 거쳐 2013년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개발된 양성자가속기는 물을 원료로 해 물 속 수소에서 분리한 양성자를 1억 전자볼트(100MeV)의 전기에너지로 가속시킴으로써, 초당 12경개(20mA(밀리암페어) 양성자빔)의 양성자를 빛의 속도의 43%(초속 13Km)로 가속시키는 장치다.